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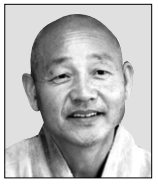
일주문



도선사 조실 추대
현성 스님은 8월 3일 문중회의에서 도선사 조실로 추대됐다. 진산식은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02)3216-4822



정조·다산 토크 콘서트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9월 1일 용주사 효행문화원에서 정조·다산 리더쉽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031)234-0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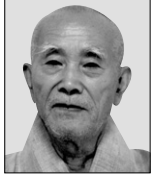
도자 대장경 봉안 회향법회
양산 통도사 서운암 주지 성파 스님은 8월 21일 서운암에서 스페인말레니 연합장단의 도자 대장경 봉안 축하법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교육
대구불교총연합회 회장 성문 스님(동화사 주지)은 8월 31일까지 반월당 보현사에서 불교 청소년 지도자 상담연수를 실시한다. (053)623-6388



천일기도 회향 법회
양산 원각사 주지 반산 스님은 8월 13일 원각사 극락전에서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을 모시고 천일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법문DVD와 CD 무료 보시
예전 법연선원 대공 스님은 불교TV 무상사 초청 일요법회 법문 내용을 담은 DVD와 CD를 무료 보시한다. (011)861-6252



수류도법 등 문화강좌 개설
법현 스님은 서울 낙원동에 두터선원 문화센터를 개원하고 9월 3일부터 수류도법, 참선, 불교교리, 사경, 사불, 서각, 한국화 등을 강의한다. (02)747-4268

제7대 정각회장 이해봉 의원 별세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국회 정각회 제7대 회장을 지낸 이해봉 前 국회의원(사친)이 8월 19일 오후 1시 30분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1세.

빈소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22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3일 오전. 장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산이다.

1942년 6월 15일 대구에서 태어난 故 이해봉 의원은 제23대 대구광역시장, 1992년 제 2대 체육청소년부 차관, 국회15,16,17,18대 국회의원, 2006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역임했다.

2006년 6월 30일부터 2008년 7월까지 제7대 정각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재임 기간동안 불자 의원 신행 활성화와 불교 규제법령 철폐를 위해 노력했다.

황조근정훈장,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했으며, 최근 저서 <바보같은 인생>을 출간했다. 신종일 기자

“정기 해외 순회법회 자주 열겠다”

조계종 전법단장 계성 스님 미주지역 순회 마치고 귀국

불교가 최근 서양에서 그곳의 풍토와 문화에 맞게 새롭게 발전하고 있다. 달라야 라 마, 틱낫한 등의 존재가 서양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심리학, 재가 수행을 중심으로 불교가 널리 전파되고 있다.

조계종 전법단장 계성 스님(사진)은 지난 6월 18일~8월 12일 미국불교의 전법활동을 위해 미주지역 10개 사찰의 순회를 마치고 귀국했다.

스님은 >6월 17일 보스턴 문수사 >6월 24일 뉴욕 원각사 >7월 1일 뉴욕 불광사 >7월 8일 필라델피아 관음사 >7월 15일 뉴욕 원각사 >7월 22일 시카고 불타사 >7월 29일 토론토 대각사 >8월 5일 LA 정혜사 >8월 10일 LA 원명사 >8월 12일 LA 태고사를 차례로 돌며 순회대법회를 봉행했다.

스님은 지난 8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서 한국 스님들이 전력을 쏟으며 포교활동 하는 것을 보고 ‘불교는 절대 망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귀국 소감을 밝혔다.

현재 미국에는 한인교회가 4300여 개에 달하는 반면, 한국사찰은 130여 개에 불과하다. 한인교회도 돈을 지불해 예배당을 빌려 쓰며 힘든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한국 스님들의 포교상황은 이보다 더욱 열악



한 실정이다. “토론토 대각사 스님은 사찰 장건을 위해 신문배달, 택시운전, 식당정소, 비행조종사 등 온갖 곳을일을 마다 않고 오직 불교홍포를 위해 힘써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실들은 현지 스님 및 신도들과 직접 이야기 나누며 앞으로 종단차원에서 힘써야 될 부분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님은 “직접 미국 사찰을 방문하니 신도분들과 스님들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 주셨다”며 “그만큼 신심 깊은 불자들이 부처님

법에 감응을 느끼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미주지역 불교발전을 위해 종단에서 >한국사찰전립 >총무원장스님의 미주지역 정착 스님 임명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마련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3가지안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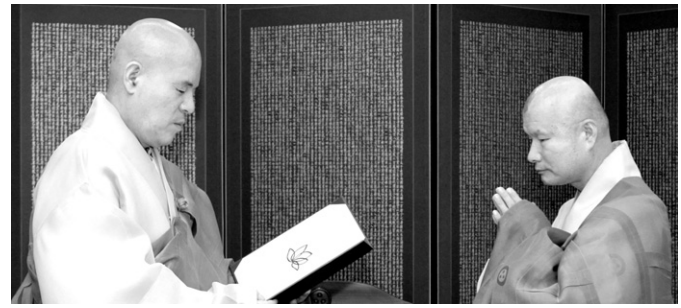
스님은 “현재 미국에 있는 대부분 사찰은 한국과 달리 가정집에서 법회를 보거나 소규모 포교당이 대부분이다. 불교와 한국전통문화를 전파하고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담당하는 대청사찰이 있다면 한국교인들이 그 지역에서 많은 자부심을 갖고 살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지역 스님 대부분은 유동성을 지니고 있다. 신도들이 스님이 언제 떠날지 몰라 불안해한다”며 “종단에서 직접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스님들을 임명해 임기를 두고 그 곳에서 생활하게 한다며 포교활동이 좀 더 안정적으로 바뀔 것이라 전망한다”고 밝혔다. 또 스님은 현지교민 및 관광객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활성화시켜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전법단의 미국포교활동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스님은 “포교원과 논의해서 전국 전법단 소속 300여 스님들과 면담을 통해 해외포교에 관심 있는 스님들을 선출하고, 정기적으로 해외지역 전법 순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soe84@hyunbul.com

조계종 전산특보 진화 스님 상임감찰 탄탄 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받는 진화 스님(사진 오른쪽)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8월 22일 총무원장 전산담당 특별보좌관에 진화 스님(봉은사 주지)을 위촉했다. 前 상임감찰 진우 스님의 후임에는 탄탄 스님이 임명됐다.

자승스님은 위촉·임명장 전달을 이룬 후 “진화 스님은 봉은사에서 계시면서 전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종단 가림지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으며, 탄탄 스님에게도 “호법부 업무를 과약하고 잘 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진화 스님은 범어사에서 자승스님을 계사로 85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송광사 선원 등에서 수행했다. 현재 서울 봉은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탄탄 스님은 통도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97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를 졸업했고 대덕사 주지를 역임했다. 신종일 기자

“佛法 바탕으로 인성교육 할 터”

구립 어린이집 수탁 받은 도림사 주지 대훈 스님

“미래의 주역으로서 밝고 건강한 새싹 불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가고 싶은 어린이집,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성 교육에 매진하는 어린이집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동작구청으로부터 구립 우리 어린이집 수탁자로 선정된 (사)한국불교교화원 도림사 주지 대훈 스님(사친)은 향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포부를 이같이 밝혔다.

구립 도림사 우리어린이집은 총 421 제곱미터 규모로 보육실, 교사실, 조리실, 자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정원은 99명이다.

대훈 스님은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원은 불타의 자비정신을 사회에 널리 알리고 자리이타의 실천과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를 전국적으로 교도하여 새 생활 불교운동의 전개와 구국도 생활을 목적으로 1973년 설립되었다”며 “그동안 양천구립 신월청소년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어린이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아동복지사업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어린이집 위탁 신청 배경을 밝혔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종단 쇄신은 근본적 개선부터”

결사추진본부, 17일 봉선사서 대중공사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범, 이하 결사추진본부)는 8월 17일 봉선사 청풍루에서 종단 쇄신안에 대한 중도들의 공의를 모으는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승가공동체쇄신위원회(이하 쇄신위원회)위원장 밀운 스님의 인사말로 시작한 봉선사 대중공사는 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원명 스님의 ‘결사추진본부 활동과 종단쇄신안 도출 추진 과정보고’와 참석 스님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날 참석한 스님들은 선거제도, 교육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수행과 정진을 바탕으로 종단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성과 쇄신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근본적인 부분부터 짚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밀운 스님은 “백번의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조계종을 비롯한 한국불교의 모든 종단이 힘을 모아 쇄신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신종일 기자

봉은사 ‘판전’ 보수불사 고불식

추사 김정희 선생이 별세하기 3일전 환관을 썼다고 전해지는 봉은사 판전이 오는 11월까지 전면 보수 공사에 들어간다. 봉은사(주지 진화)는 8월 26일 봉은사 판전에서 보수불사 임재 고불식을 열고 실물 경관을 이윤하는 의식을 최초로 봉행했다.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83호인 봉은사 판전에는 <대방광불 화엄경> 목판을 비롯해 <금강경>, <유마경> 등 13종류 경전의 목판 3,749장이 보관돼 있다.

강민수 봉은사 홍보팀장은 “판전 내부바닥과 경판 보관관가, 지붕 기와 등에 균열이 발견되는 등 내외부를 전면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불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경관을 해충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한 훈증 소독 등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금강대, 국내 대학 중 장학금액 1위

금강대가 국내 전체 대학 가운데 장학금액이 가장 많은 대학으로 꼽혔다.

금강대(총장 정병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8월 23일 ‘대학 알리미’를 통해 공개한 2011년도 장학금 수혜 현황에서 국내 전체 대학 1위를 기록했다. 교과부가 밝힌 2011년도 4년제 일반대학 재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은 146만원으로 금강대는 이보다 5배 가량 많은 723만원이었다.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소수정예 교육 특성화 전략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학제도와 뛰어난 연구환경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佛敎淨衆宗 창종 선포문

“깨끗하고 맑은 우리의 중생들이 불국정토를 염원하는 종단”

曉起專心絶一體 夢見如實破空寂 願我繼創淨衆宗 五更一轉無住跡 효기전심절일체 몽견여실파공적 원야계창정중종 오경일전무주적

새벽에 일어나 전심하여 일체를 끊어버리고
꿈속에서 여실하게 공적을 부수는 걸 보았네
원컨대 정중종을 이어 다시 창종하노니
오경이 한번 굴러 흔적조차 없다네.

부처님 입멸 후 정법과 상법이 쇠락하고 말법시대에 이르러 중생심은 탐욕에 물들어 무명에 휩싸인 채 나아가갈 길을 몰라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세계 인류구제와 정신문화 계도, 민복안락과 전법도생의 길을 열고자 자성을 밝혀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열어 불국정토를 이루고자 서원하는 바이다.

이제 시절의 인연이 도래해 법의 당기를 우뚝 세워 종문을 여니 곧 불교 정중종 창종을 시방세계 불보살과 역대 조사들께 고하는 바이며, 무상선사의 염불선공을 만세번계에 다시 쌓는 것이다. 그리하여 불교 정중종으로 계종을 통섭해 일체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수행문을 열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한국불교 유사이래 획기적인 일이라 하겠다.

불교 정중종 종조 무상선사는 신라 성덕왕 셋째 아들로 군남사에 출가, 44세에 당나라로 건너가 오조 홍인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분인 지선선사의 수법제자 처적스님에게 인가를 득했고, 법의 징표로 달마 조사의 의발을 전해 받아 정통법인의 사자상승을 이었다.

무상선사 문하에 마조 도일선사가 선법을 이었고, 지장, 마곡, 남침, 장경선사 등을 거쳐 도의, 홍척, 혜철, 범일, 무염, 현욱에게 그 법이 전수돼 한국 땅에 구산선문을 열게 됐다.

이와 같이 무상선사가 한국고승 최초로 중국 사천성에 정중종을 창종 하고 선법을 품미한지 오래되지 않아 종문이 인멸돼 1천3백여 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한국 승려로는 유일하게 중국 오백나한 가운데 455번째 지위에 올라 중국인들로부터 보살로 추앙받고 있다.

무상선사 열반 1천3백여년 만에 인몰된 불교 정중종을 다시 창종하니 이는 불조의 혜명과 종도대중의 뜻을 받들어 계종통섭을 통해 불교의 새로운 흐름을 일으켜 불국정토를 이룩함이다.

삼가 불조와 무상선사의 가호 아래 우리 범속만대의 향상과 번영을 빌며, 종도 대중과 함께 불교 정중종 창종을 만천하(滿天下)에 선포하는 바이다.

시단 정중종 불교 정중종 종정 진여 법만 합장

불교 정중종 총무원 :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140길 100 (중화동)
전화 : 02)433-6591~2